사랑하는 동역자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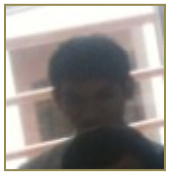
도우 쁘도우 ជួបជួរ *Change Change* (변화 변화) ! 샬롬, 캄보디아의 정지웅, 조은영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동역자님께 그동안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스로에도, 사역에도, 캄보디아에도 변화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늘 초점을 떼지 않을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 대학과 말씀 사역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NPIC 에서의 강의와 예배 사역은 매 학기 새로운 영혼들과 즐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꿈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 때에 저희가 특별히 미래의 지성인 대학생들 만나 교제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할 때, 동시에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마치 성장판이 자라듯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성장통도 겪고 있습니다. 특변히 어제 마쳐진 총선으로 인해 이 나라의 민주화 바람이 그 어느때보다 거센 것을 매일 눈으로, 귀로 실감합니다.

이러한 때, 미래의 지성들을 만나,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 바람들을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옮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하며, 강단앞에 설 때 (학교에서건, 교회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늘 책임감을 느끼며, 해답의 궁극의 열쇠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손에 쥐어줄 수 있기를 늘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중 싸붓 Savuth 이란 학생이 있습니다.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언어 장애도 조금 있어 보이는 전자과 4 학년 학생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9 월에 종강하기전 싸붓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려 합니다. 그를 알게 해 주시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 교회와 예배

제자 교회 JEJA House & Church 는 십계명 설교와 다윗 설교를 이은 2013 년 세번째 시리즈로 지난 6 월이후 믿음의 인물 베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변화(Change)'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 시몬을 택하사 어떻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세우셨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매주 즐거움으로 살펴나갑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엮어내는 성령의 역동성, 교회의 시작, 복음의 확산 등의 거대하고 도도히 흐르는 변화의 물줄기 행 1:8 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함께 단단해 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새로이 믿음의 결단의 문턱에 다다르는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헤잉 Heng 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NPIC 전자과 3 학년 수석인 수재로, 작년 가을이후 교회에 출석하며, 더디게 그러나 차곡차곡 주님을 탐색해 온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믿음으로 던져야 하는 결단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내려야 할 그 한 걸음은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를 줄 것입니다.

씬 [shin] 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줄곧 불교사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심에서라기보다는 경제적 실리가 주 원인입니다. 사원의 일종의 학사 사역인 것입니다. 기숙생들은 불경을 배우고, 지키고 따라야 하는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씬이 영어 수업 [ACE] 이 다리가 되어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들은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쉬운가 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씬은 왕립대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에피소드는 씬이 처음 온 날, 마침(?) 교회의 수도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씬과 다른 학생들이 임시처방으로 고쳤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정착시키시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종의 현지화인가요? ☺

마라디 [Marady] 입니다. 나이에 비해 키가 멀대같이 크고, 섬세하고 착한 고등학생입니다. K-Pop/드라마를 좋아하고 베트남 말도 잘 합니다. 교회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전거 타고 옵니다. 얼마전 조선교사에게 피아노를 배울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의례 노래를 좋아하니 가벼운 관심인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도래미를 따라하고, 종이에 건반을 그려 연습을 해 오더니, 지금은 이웃집 키보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열심에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 마라디가 우리 교회 찬양 반주자일까?' 순간, '그런데 몇년이 걸릴지 몰라..' '그래도 한번 해 보자'. 정말 마라디가 반주자일까요? 피아노와 함께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에 마라디가 소그룹 모임에서 조선교사에게 한가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꿈 속에서 사모님(조선교사)이 교회 문 앞에 서서 너무도 단호히 더이상 교회 오지 말라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단의 짓입니다. 한 영혼이 깨어날 때, 겁을 주는 것입니다. 마라디를 위해 중보해주세요. 진리를 알고 믿음을 주시길.

셋. ISG [Interactive Searching God] – [Online] 'Acts', 찌보완

작년 1 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후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찌보완 [NPIC 전기 3] 형제가 계기가 되어 시작된 온라인 사도행전 상호 묵상 프로그램입니다. 두 달전, NPIC 전기과 내에 현지 교수 지도하에 주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과 수석인 찌보완은 첫번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채우실 것임을 믿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며, 이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매일 일대일 성경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6 주가 흘렀습니다. 찌보안의 믿음은 눈에 보이게 확연히 자랐습니다. 정확하고 견고해져갔습니다. 한 형제의 변화를 통해, 저희는 이때가 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을 교회 내 핵심 멤버들로 확대했습니다. 방식은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찌보완을 돕는자로 세워 모두가 함께 매일 성경의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나눔을 올리고 서로가 댓글을 달며 때로는 채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Interactive Searching God-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2 주째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에게 '성령'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찌보완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자신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 ISG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멤버들이 상호 단단히 엮여 초대교회의 7 집사와 같은 기둥이 되면 좋겠습니다. (찌보완, 피롬, 삐싸이(남), 삐싸이(여), 헤잉, 홍)

넷. 다리 사역 Bridge Ministry – 언어교육: ACE 영어 and TOPIK 한국어

지난 동역서신에서 시작된 ACE Advanced Course of English 영어 수업은 그동안 한 과정이 끝났고, 지금 두번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학생들도 많이 들었고, 전체 6 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둘로 한계가 있어 동역할 분을 위해 기도하던 중, 최근 캄보디아로 오신 두분의 선교사님이 함께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언어 공부중인 선교사님들에게도 현지 학생을 만나 교제하는 것 또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생각할 때, 이는 저희 교회에게도 또 두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캄보디아에는 한국으로 노동자나 유학생으로 가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를 위해 토요일과 주일에 한국 유학반 성격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반을 열었습니다. 주일 교회의 성경공부 제자훈련을 제외하고 현재 모두 8 개반의 언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교회로의 다리 사역 Bridge Ministry 입니다. 잘 밟고 건너올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 가르침에도 탁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프놈펜국제예술대학 PPIIA Phnom Penh International Institute of the Arts

정선교사가 NPIC 와 함께 프놈펜국제예술대학 PPIIA 강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3 년전 캄보디아로 향하며 마음에 큰 부담이었던 음악교육에 대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로, 작년 5 월 학교를 지어갈 때, 상단식 예배의 말씀을 전하였었고, 올 2 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교직원예배를 시작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10 월 개강을 앞두고 현재 교과 과정을 만들고, PPIIA 가 프놈펜에 세워진 7 가지 이유를 정리해, 인근의 학교, NGO, 교회, 선교단체등에 알리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고등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젊은 세대를 만나는 소중한 터입니다. NPIC 와 더불어 예술학교 사역을 통해 새로운 영혼을 만나게 하심은, 새로운 수준의 헌신의 부르심이라 여깁니다. 저희 부부를 더욱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삼으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심에 귀히 쓰시길 기도드립니다.

여섯. 나라

어제(28 일 주일) 캄보디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집권 여당과 훈센 총리가 5 년간 정권을 유임하게 되었습니다. 훈센 총리는 70 년대 중반 킬링필드를 자행했던 크메르루즈의 하급간부였다가

양민학살등에 회의를 느껴 베트남으로 망명하였고 79 년 베트남 군대와 함께 프놈펜에 재입성해 크메르루즈를 몰아내며 20 대에 장관과 고위직을 두루 거쳐 85 년 당시 32 세의 나이로 총리가 된 후, 현재까지 28 년째, 그리고 5 년을 합쳐 33 년의 최장기 집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정사회주의,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 한국과 수교하고 외자를 끌어들여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당과 권력의 장악력, 고질적 부패와 부정선거와 독재등으로, 현재의 젊은세대에 거센 반발을 받고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캄보디아 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삼랑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며 전국적으로 거센 민주화 물결을 일으켰고, 어제 저녁에도 부정선거와 여당의 재집권에 분노한 시민들은 집단으로 경찰차를 파손하고 방화하는 등, 선거 후 출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월) 시내의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저희에게 있어 매우 실제적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일곱. 가정

정선교사 부모님께서 지난 5 월 캄보디아를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더위를 많이 타시는 아버지가 2 주 반동안 1 년치의 땀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저희의 일상을 보시고 함께 하시며, 이전보다 더 애뜻하고 사랑의 마음을 많이 담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도 두분을 배웅하며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주언이가 온유보다 2cm 더 큽니다. 이전에는 쌍둥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오빠냐고들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온유는 자기가 누나라고 합니다. ☺ 그동안 구구단도 외웠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매주 성경구절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감사한 간증은, 지난 4 월 29 일 온유가 학교에서 워십댄스를 하던 중, 꽃과 보석이 많은 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큰 의자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Praise the Lord!] 이후 부르심의 때가 되면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늘 같은 것 같은데, 문뜩 돌아보면, 아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성장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난 6 월 6 일은 저희부부의 결혼 10 주년이었습니다. 선교사의 한 꿈을 따라 만나게 하셨는데, 선교지에서 10 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인지요. 그날 3 년만에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여행도 꼭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방효원 선교사님 가정으로 저희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를 매일 변화시키사 주의 뜻에 합한 선교사 되게 하시길 하소서.

기도제목

1.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이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성장하기를 (교회, 양육)
2.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로날로 더해지기를 (학교사역, 다리사역)
3. 정지웅, 조은영 선교사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주님 안에서 깊어지고, 탁월하며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4. 온유 주언이가 늘 건강하고, 성령 가운데 믿음과 성품과 지식이 잘 자라길

동역님의 사랑과 기도에 늘 감사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13 년 7 월 29 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언 올림

* 선교사 후원 안내를 원하시면 알려주세요.